

ECONOMY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중소 선박제조기업 공공조달 진출 돕는다

한전, 독일 MR사와 협력 예방진단 기술로 유럽 개척

한국전력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과 독일 MR사의 진단시스템, 183개국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전력설비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MR사와 설비 상태 실시간 점검을 통한 고장 사전 예방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 MR사 CEO 등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해 예방진단 솔루션 기술 연계와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SEDA 기술을 통해 매년 15건 이상의 전력설비 고장을 사전 예방해왔으며, 2021년 도입 이후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MR사는 변압기 핵심 부품인 전압조정장치(OLTC) 분야 글로벌 리더로, 세계 183개국에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예방진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사는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과 MR사의 진단시스템, 글로벌 영업망을 결합해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전력설비 예방진단 시장 선점을 본격 추진한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조달청, 목포서 소통 간담회...지원제도 안내 용역 계약 일괄발주·감리제도 개선 등 건의

조달청이 전남 중소 선박제조업체를 찾아 공공조달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8일 본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와 함께 전남 목포에 소재한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고려메인칼 낙찰하한을 상황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과 전남지역에서 공공선박을 제조하는 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선박 설계용역과 건조계약 일괄발주, 선박 감리제도 개선, 선금 보증기관 확대, 선박 구매입찰 낙찰하한을 상황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현재 선박에 시범 도입된 단품 물가조정(단품 슬라이딩)제도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안내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관 우월적 특약조 건 정비, 특정규격 명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구매(제조)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선박 구매 입찰 및 계약 업무의 효율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8일 본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와 함께 전남 목포에 소재한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고려메인칼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을 높이고 있다. 또 단품 물가조정제도는 공사계약에서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률(15% 이상) 했으나 총액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주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자재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해 주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시범도입 중이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전남의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산재 예방 위한 정부·기업·노동자 협력 시급" 광주경총, 예방 중심 정책 전환 등 강조

광주경영자총협회가 8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기업·노동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현장의 최우선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을 꼽으며 안전을 '규제나 비용'이 아닌 '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자 의지에 따라 안전문화 정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역할과 관련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주문했다. 광주경총은 "노동자 역시 안전의 주체로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참여가 병행돼야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통시장 이용합시다"...민생회복 소비촉진단 발족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8일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전남도, 전남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단을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을 비롯해 전남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전남상인연합회 및 각 시·군 상인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참석자 모두 전통시장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활동 동참에 뜻을 모았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8일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전남도, 전남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단을 발족했다.

행사를 통해 전남도는 순천우당 상인회장을 소비촉진단장으로, 목포 동부시장과 순천야갯장 상인회장을 부단장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다함께 손피켓을 활용, 소비촉진 구호를 제창하는 등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발족된 소비촉진단은 전남상인회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상인교 육과 현장 홍보활동 강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촉진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촉진단 발족이 지역 전통시장 이용객을 늘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됐으면 한다"며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페이백, 특별재난지역 추가 환급행사, 9월 동행축제 개최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촉진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전남중기청, 전남도·전남상인회와 정책 홍보 등 협력

2025년 9월 9일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주광역시
www.gwangnam.go.kr

소중한 날엔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하세요

- 꽃분이 로고는 사랑입니다.

- 꽃·식물 (꽃다발, 꽃바구니, 꽃박스, 화환)
- 공간연출 (행사, 포토존, 웨딩연출)
- 부케드라이 (부케역자, 부케무드등, 부케캐들)
- 귀피카페 (란살리오클라시카)

010. 6411. 7975

m.blog.naver.com/qwer44566 @ instagram.com/flower_buni

전남지역
광주광역시
동행 로고

광주 동구 제봉로 140번길 4

인쇄·디자인기업 호호, 관광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

광주디자인진흥원 지원 체험형 DIY 상품 등 호평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인쇄·디자인기업 호호(대표 손채원)가 출품한 '한국 전통 글리팅(Glittering)'이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을 담다, 지역을 선물하다'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올해 관광공모전에서 호호의 '한국 전통 글리팅'이 일반부문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호호의 '한국 전통 글리팅'은 금박 인쇄 기반의 DIY 색칠 키트 상품, 금속을 얇게 만들어 새기는 전통 박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기획한 체험형 DIY 상품

으로 심사단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 전통 글리팅'의 한옥과 팔각정, 사방신 등의 이미지는 지역 역사·문화적 특성과 매력적인 콘셉트를 담아냈다는 평가다. 자유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인쇄기술과 세련된 디자인, 패키지 등도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인쇄기반 상품과 지원 사업을 통해 호호의 글리팅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첫 글리팅인 사방신 시리즈를 제작,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목표금액의 1549%를 달성하기도 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실물 연계형 패션 코인 '드레스' 상장 오늘 게이트 거래소...발행량 20억개

아바타메이드는 협력사인 레드팬츠 재단(Red Pants Foundation)이 발행한 가상화폐 '드레스(DRESS)' 토큰이 9일 글로벌 거래소 게이트(Gate.com)에 상장된다고 8일 밝혔다.

드레스 토큰의 첫 거래소 상장이며,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 거래소는 드레스/테더(USDT) 페어 거래를 지원한다. 게이트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 순위 2~8위권의 중대형 플랫폼이다. 최근 유망 알트코인 상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드레스 토큰을 상장한 프로젝트인 '드레스디오(DRESSdio)'는 'DRESS'와

'stuDIO'의 합성어로 누구나 참여해 원하는 옷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패션 가상화폐 '드레스(DRESS)' 토큰이 9일 글로벌 거래소 게이트(Gate.com)에 상장된다고 8일 밝혔다.

드레스 토큰은 이더리움(Ethereum) 계열 폴리곤(Polygon) 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코인으로 세계 최초 패션 산업 크리에이터들의 자율 협업 기반 실물 연계형 Web 3.0 패션 생태계인 '드레스디오(DRESSdio)' 플랫폼을 위한 전용 코인이다. 실물 연계형 거래와 함께 가상화폐 동영상 서비스와 스타일 추천 등

을 탑재한 패션 커머스 전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인 '나르시스(NARCIS)' 서비스에서도 연계돼 사용된다.

이번 상장은 지난 1월 발행과 함께 진행된 프라이빗 세일 후 첫 공식 유통 행보다. 전체 발행량 20억개 중 8%인 1억6000개가 이미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판매된 상태이며 상장을 통해 실질적 거래 유통과 함께 시장 기반의 시세 형성 및 유통성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국대학교 교수인 박창구 대표가 이끄는 아바타메이드는 지난 2023년 10월 국내 최초 Web 3.0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인 '두드레스(doDRESS)'를 공식 출시한 데 이어 올해 레드팬츠재단(Red Pants Foundation)과 협력해 AI 및 블록체인 기술 기반 '드레스디오(DRESSdio)' 플랫폼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드레스 코인을 발행,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